

# 완주군, 국비 3000억 총력

### 2월 중순~5월말까지 21개 중앙부처 대상 정기·수시 방문활동 전개

완주군이 2018년 국가예산 3000억 시대 개막을 위해 연초부터 중앙부처를 집중적으로 방문하며, 국비 확보를 위한 발빠른 행보를 이어가는 등 총력을 펼치고 있다.

6일 군에 따르면 부처별 예산편성을 앞두고 2월 중순부터 국실과 소관부처를 대상으로 국가예산 확보 총력 활동을 전개했다.

특히 박성일 완주군수는 3월 확대간부회의 보고회를 통해 국비 활동 상황을 점검했다.

군은 군정 핵심사업인 화산~운주간 국도 17호선 시설개량사업을 비롯, 대규모 신규사업인 만경강 수난체험센터, 사회회계계 전문교육원 유치, 완

주군 식품안전센터 설치 사업의 국비 확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

또한 구) 만경강 철교 활용사업, 위봉산성 관광자원화,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노후 상수관망 정비, 재해 위험지구·소하천 정비 등 꼭 필요한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이에 군은 앞으로 부처별 예산편성이 확정되는 시점인 5월말까지 지속적으로 정기·수시 방문활동을 전개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군은 특히 3월말에 중앙부처 완주항우 간담회를 개최하고, 중앙 인맥과의 협력네트워크를 가동해 지역발전 위한 국가예산 확보 역량을 최대한 결집해 나갈 예정이다.

현재 군은 3차에 걸친 국가예산 발굴 보고회를 통해 2018년 신규 국비사업 126건, 총 국비 6,485억원을 발굴했으며, 부처 예산편성 단계부터 전직원이 전방위적·입체적 노력을 통해 역대 최대 규모의 국가예산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다.

박성일 군수는 "2018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전사적 노력이 필요하다"며 "2018년 역점 확보사업 관리를 통한 부처별 대응전략을 마련하고, 조기대선 등 중앙부처 동향을 예의주시해 다른 지자체보다 한발 빠르게 대응함으로써, 지역발전과 군민행복을 위한 국가예산 3000억 시대 달성을 반드시 이뤄내자"고 당부했다.

/완주=이종복 기자

## 완주군, 애향장학생 신청 17일까지

재단법인 완주군인재육성재단은 이달 17일까지 애향장학생 신청 및 접수를 받는다고 6일 밝혔다.

애향장학금은 5종으로 대학생들은 일반장학금, 상위권대학 진학, 생활장학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고등학생들은 지역고교입학 장학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예체능 계열에서 특별한 성적을 가진 중·고등학생과 대학생에게는 예체능 장학금 혜택이 주어진다.

장학생으로 선발되면 4년제 대학생은 학기에 최대 200만원, 2·3년제 대학생은 최대 16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생활장학생은 수도권에 진학한 대학생 중 월세나 기숙사비를 학기에 최대 150만원을 지원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상위권대학 진학과 지역고교 입학 장학금의 액

수가 대폭 상승했다.

상위권대학 진학 장학금의 경우, 지역내 고등학교 졸업생 중 서울대, 카이스트, 포항공대 등 국내 상위권 대학에 진학하면 1000만원의 장학금이 지급된다.

또한 지역고교입학 장학금은 지역내 중학교 졸업자 중 성적이 우수한 학생이 지역내 고등학교로 진학할 경우, 입학시 300만원의 장학금을 받는 것은 물론, 2~3학년 재학 중 일정한 성적을 유지하면 매년 100만원씩, 총 500만원의 장학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애향장학금 신청은 주소지 읍·면사무소와 완주군인재육성재단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되고, 자격사항, 지급기준, 준비서류 등 세부 사항은 완주군인재육성재단 및 완주군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완주=이종복 기자

### 지역 소식통

#### 서울독일학교, 완주군과 아동·청소년교류 추진 논의

서울독일학교(Deutsche Schule Seoul) 관계자 2명이 지난 3일 아동·청소년의 교류 및 현장답사를 위해 완주군을 방문했다.

서울독일학교 방문단은 고산자연휴양림 일대, 전통문화체험관, 문화예술촌 일대와 삼례책마을, 구이 스테마박물관 등을 견학했다.

완주군은 방문단을 위해 완주군 소개 및 환영행사, 아동친화도시 소개, 방문단 체험활동, 독일어 통역관 등을 준비해 방문을 지원했다.

이번 방문단의 Melissa Siebel 교사는 완주군과 아동·청소년교류, 체험학습 등을 논의했으며, 이르면 올해 상반기에 협약을 체결하고 아동·청소년교류를 추진키로 했다.

#### 장수군, 복지사각지대 제로화 추진

장수군은 복지사각지대의 제로화를 선언하고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찾아가는 복지대상자 발굴 및 상담, 가구별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장수군 희망복지팀은 통합사례관리사들의 가정방문을 통해 탈빈곤 지원이 가능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 및 차상위 빈곤가구, 긴급지원 대상가구 등을 중점 방문, 복지사각지대 가구를 적극 발굴한다고 밝혔다.

복지사각지대에 발굴된 가구는 난방비, 생필품비 등 최대 50만원까지 현물 지원하고 의료비는 300만원 이내 생계비 및 의료비는 소득 및 재산기준에 의해 3개월까지 지원하며 단전, 단수 등 체납비도 지원한다.

#### 무주군, 3월 월례조회... 신뢰 강조

무주군은 6일 전통문화의 집 대강당에서 200여 명의 공직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3월 월례조회를 가졌다.

참석자들은 '오바바 소통의 비밀 3가지'를 시청하고 새전북신문사 박명규 대표가 진행하는 '당신의 지역을 마케팅 하라!'라는 주제의 강연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는 무주읍 박근범 씨와 실천면 김건화 씨가 성실 납세자로 선정돼 군수 표창을 받았다.

황정수 군수는 월례회를 통해 "신뢰행정은 군민이 무엇을 원하는지 아는 것, 군민 눈높이에 맞는 대안을 마련하고 신속·정확히 실천하는 일"이라며 "사소한 의견도 무거운 마음으로 받아들여 제대로 실천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줄 것"을 강조했다.

## 무주군, 부동산 '일사편리' 서비스 제공

### 종합증명서에 18종 대장 담야... 1필지당 종합형 1500원·맞춤형 1,000원

무주군이 부동산의 효율적 이용과 관련 정보의 종합적 관리·운영을 위해 '일사편리'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일사편리 서비스는 토지·임야대장과 지적·임야도,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공시지가 확인서 등 18종의 부동산 관련 각종 대장을 부동산종합증명서 1종에 담아 발급해주는 것이다.

군청 민원실, 읍·면 주민센터 등지에서 발급을 받으면 종합형이 1필지당 1,500원, 맞춤형이 1,000원이다.

인터넷 부동산통합민원포털에서 발급을 받을 경우에는 종합형이 1필지당 1,000원, 맞춤형이 800원이다. 인터넷 열람은 무료다.

박금규 지적담당은 "일사편리 서비스는 다양한 부동산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고 복잡한 민원을 한번에 해결할 수 있다"며 "주민들을 대상으로 부동산종합증명서 일사편리 서비스를



무주군이 부동산의 효율적 이용과 관련 정보의 종합적 관리·운영을 위해 '일사편리'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지속적으로 홍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3월 1일부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에 따라 인터넷 '민원 24'에도 지적공부의 열람 및 등본 발급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무주=전문선 기자

## 장수군, 구제역·AI 청정지역 사수 총력

장수군은 AI가 최근 해남 육용오리 농가, 충남 청양의 산단계농가 및 고창군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청정지역 사수를 위해 철물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군에 따르면 2월중 발생한 AI는 철새가 주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으나 지금까지 발생한 H5N6와 다른 H5N8형 항원이 검출되고 있으며, H5N8은 잠복기가 길고 증상이 경미해, 오리 등의 경우 관찰을 소홀히 할 경우 발견이 쉽지 않은 관계로 농가별 전담공무원을 지정 매일 입상예찰을 실시하고 있으며, 계열사에 대해서는 농가교육,

사료 공급차량에 대한 방역 등 물결 없는 방역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AI 발생의 주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철새관육을 위해 군내 12개소의 주요 저수지에 외부인들의 접근을 차단하고 있으며, 방역이 취약한 70세 이상 고령농가와 소규모 사육농가는 매주 수요일 공동방제의 날에 일제소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도축장, 가축시장, 사료공장 등 축산차량 진입이 빈번한 시설에 대해서는 방역차량을 상시 배치해 단 한건의 가축질병도 발생하지 않도록 차단 방역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장수=고관호 기자

## 이항로 진안군수, 귀농귀촌 정책 특강

이항로 진안군수는 6일 산림조합중앙회 임업기흥훈련원에서 실시하는 귀농·귀촌 입업후계자 양성 과정에 참석하여 '진안군의 귀농귀촌 정책'을 소개했다.

이날 이 군수는 진안군의 귀농정책의 추진배경과 필요성 및 진안군 귀농귀촌 현황, 진안군의 귀농귀촌 정책 5대 원칙, 귀농귀촌 추진사업과 2017년 귀농귀촌 추진계획에 대해 설명했다.

진안군은 그동안 2006년부터 마을간 사례도를 추진하며 전체 85명 중 51명이 지역에 정착하였고, 농식품부 지원 도시민 농촌유치지원사업과 전라

북도 지원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체험형 가족농원과 귀농인의 집 지원사업을 통해 귀농 준비를 도와주고 있다.

앞으로 진안군은 전원마을 3개 지구를 조성하고 소규모 마을 기반조성을 지원하며 게스트하우스를 신축할 예정이다. 귀농귀촌 활성화 사업을 통해 도시민 상담 교육과 박람회 참가, 귀농학교 운영 및 주택과 농지정보를 구축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주민유대 강화 프로그램 등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할 계획이다.

/진안=우태만 기자

## 진안군, 지자체 재난관리 우수기관 선정

진안군은 6일 2017년 지자체 재난관리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국민안전처가 실시한 재난관리평가로 2016년 한 해 동안 선진 재난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총 5개 분야(개인역량, 재난관리부서 역량, 재난관리네

트워크 역량, 기관역량, 가·감점) 39개 지표에 대해 평가를 실시해 진안군이 전라북도 우수기관에 선정됐다.

이번 평가에서 진안군은 2016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실시결과 우수그룹에 선정되었고 재난전담인력 확보로 재난대응 전문성을 향상시켰으

며 유관기관·민간단체 간 협업체계 구축, 주기적인 간담회, 협력체계구축으로 재난사건대비에 만전을 기한 부분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항로 군수는 "우수기관에 선정에 만족하지 않고 미흡한 분야에 대한 철저한 원인분석을 통해 지속적인 우수기관 선정과 재해·재난 없는 안전한 진안 만들기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Mulberry Wine**  
You can now enjoy the wild ginseng that you dreamed of! Gansanmyeongju's Mulberry Wine.

청와대 만찬주!  
부안강산뽕주를 선택했습니다.

**청와대에서 즐기는 만찬주!**  
**부안강산뽕주와 함께 오디주의 참맛을 느껴보세요.**

오천년 민족의 격조높은 기쁨을 오디 넉넉히 넣고 정성스레 빚어내어 부드럽고 오묘한 맛에 뒤끝이 깔끔함을 한병 술로 빚었습니다. 부안의 변산반도 청정해역의 해풍을 맞으며 영글어져 타 지역보다 당도와 질이 아주 탁월 합니다. 이 질 좋은 오디만을 선별하여 직접 생산 농가로부터 다량 구매하여 군민 소득 증대 사업에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부안강산뽕주**  
Premium Otdi Wine

GIFT SET 1E | 750ml 2ea, 잔 2ea/16%

GIFT SET 2E | 750ml 2ea, 잔 1ea, 오프너/12%

GIFT SET 3E | 750ml 1ea/12%

GIFT SET 4E | 500ml 2ea, 잔 2ea/12%

GIFT SET 5E | 375ml 5ea/13%

GIFT SET 6E | 500ml 향뽕2ea/12%, 복분자1ea/13%, 잔 1ea, 오프너

GIFT SET 7E | 375ml 2ea/13%

TEL : 063-594-9900  
www.gansanwine.com